

뉴스홈 | 최신기사

[현장 In] 부산 센텀 2지구 개발사업 놓고 갈라진 여론

송고시간 | 2019-02-24 12:11



차근호 기자
기자 페이지

|"풍산에 특혜 주는 개발 안 돼" vs "소외된 반여·반송동 혜택"



부산 센텀 2지구 예정지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해운대구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제2센텀시티) 개발을 놓고 갈등이 첨예하다.

부산시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계획을 밝힌 곳은 해운대구 반여동 일대다.

시는 1조6천413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융합부품 소재,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 블록체인, 바이오, 헬스, 영상콘텐츠 분야 1천50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여론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지난 15일 해운대 반송 1동 주민센터에서는 반여·반송동 주민 자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들이 센텀 2지구 개발을 촉구하며 '주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나섰다.

지난해 만들어진 '풍산제별 특혜개발 센텀 2지구 개발 전면 재검토 부산대책위(이하 부산대책위)'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부산대책위는 센텀 2지구 개발사업이 개발 예정 부지에 공장이 있는 방위산업체 풍산에 막대한 혜택을 줄 수 있다며 개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다.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불합격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 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등...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이나 국경 넘었다 ...



가족찾기 사연 보러가기



센텀 2지구 195만㎡ 부지 중 풍산이 차지하는 면적은 102만㎡로 절반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 중 막대한 돈이 풍산 이전에 쓰일 계획이다.

두 단체는 지난 15일 '주민대책위' 출범식 때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당시 현장은 두 단체 간 몸싸움과 고성으로 얼룩졌다.

주민대책위 심경도 위원장은 "방송·반여동 지역은 예전에 인구가 8만명에 달했는데, 지금은 개발되지 않고 낙후돼 주민이 반 토막 난 상황"이라면서 "제2 센텀 지구 개발로 주민들이 이제야 희망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는 상황이 라 개발은 꼭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텀 2지구 조감도
[부산시]

이에 대해 부산대책위 측은 "주민대책위는 해운대구청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관제 단체"라면서 "방위산업 을 이유로 특혜를 받고 이곳에 자리 잡았던 풍산이 지금은 방위산업과 관련된 대부분을 철수시키고 공장 1개 라인만 남겨둬 형식만 유지하는 상황에서 제2 센텀 개발로 인한 이전비용이 고스란히 지급된다면 사업의 과실은 풍산만 모두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부산대책위 측은 또 "지자체가 주민을 동원해 여론만 조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역민에게 이익을 돌아가는 방식으로 개발할지 고민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본분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갈라진 여론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따라 향후 사업의 명운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국토부가 부산시 개발안에 제동을 건 상황이다.

센텀 2지구 개발지의 90% 이상인 181만2천여㎡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부산시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린 벨트 해제가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센텀 2지구 산업단지 일대 그린벨트 해제 안건을 유 보하고 재심의 결정을 내린 상태다.

심의위원회는 산단 내 녹지비율 확대, 조림지 보존 대책 등도 요구했지만 '지역주민 공론화 절차'도 선결 조건으로 내건 상태다.

부산지역 일부 시민단체는 공공개발을 빙자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02/24 12:11 송고

#풍산 #센텀 #개발 #국토부 #여론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을 위한 온종일 마술, 롯데캐슬
LOTTE CASTLE
www.lottecastle.co.kr

We Do Technology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상'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현장 영상 →

▶ 01:18

[영상] 입 발 묶인채 두 눈만 열쫓쫓...누가 확대했나

▶ 02:22

[영상] 곡사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췄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이나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위장관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7개월만 종료...마스크는 그대로

尹당선인 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화...美와 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료과목 2개 수강

옥정중앙역 바로 앞, 호수공원을 품은

하이엔드 오피스텔

Amaden

4월 15일 그랜드오픈 | 031) 861-8861

댓글 많은 뉴스

1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찰에 고발

137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대병원 자원봉사

60

3

'유퀴즈'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안 맞아"(종합)

59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할동재개 예열?

50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사회발힐 예정"

38

